



레이건 美大統領 對外 原子力 新政策 發表, 嚴한 規制에서 緩和로

레이건 美國 大統領은 7月 16日 美國의 對外 原子力政策인 「核不擴散과 平和利用協力에 관한 聲明」을 發表하였다.

7개항목에 걸친 이 성명에서 美國은 核擴散防止에 계속 至大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도, 原子力 平和利用에 대해서는 카터 전 정권의 政策과는 달리 「진보된 原子力計劃을 갖고 있으며 또한 核擴散의 위험이 없는 여러나라의 民間에서 再處理, 高速增殖爐(FBR)를 금지, 억제할 의사는 없다」고하여 충분한 보장조치하에서 原子力 平和利用을 추진하는 國家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먼저 核擴散이 국제평화, 안정 및 美國의 안전보장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위협을 주고있는 現狀을 分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들의 노력이 성공하느냐,

않느냐는 핵폭발물 보유를 渴望하는 동기를 감소시켜주는 우리들의 能力에 달려있다」고 核不擴散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한층 더 效果的으로 協力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核不擴散의 指針으로는

1. 核擴散 防止條約(NPT), 라틴 아메리카 핵병기 금지조약에 아직 가맹하지 않은 나라들의 가맹을 촉구한다.
2. 이러한 條約 또는 국제보장 조치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국제질서 및 미국의 2국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또한 非核國에 의한 어떠한 핵폭발에도 중대한 관심을 갖는다.
3. 보장조치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國際 原子力機構 (IAEA)를 강화·지지한다.

등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核擴散의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指針으로는 「fine核物質, 設備 및 技術의 移轉을 계속 금지함과 동시에 중요한 核物質의 신규공급약속의 전제조건으로 非核國의 모든 原子力 活動에 대해 IA-EA보장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므로써 국제 보장조치체제를 따르지 않는한 核物質 供給에 응하지 않을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原子力 平加利用 推進에 대해서는 「美國의 많은 우호국, 동맹국들은 原子力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러國家는 근래 미국이 이런 國家들의 必要性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原子力 平和利用에서도 엄한 제한을 가했던 카터 전 정권을 비판하고 「(이들 여러나라와는) 오히려 충분한 보장조치하에서 原子力 平和利用協力の 예견가능, 또한 신뢰할만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核不擴散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고 하였으며 平和利用推進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아가서는 核不擴散을 效果의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核燃料사이클 확립에 必要한 再處理, FBR開發에 대해서는 「진보된 原子力計劃을 갖고 있으며 또한 核擴散의 위험이 없는 여러나라에 대해서는 금지, 억제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民間 再處理, FBR開發에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을 환영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절한 보장조치하에서의 原子力 平和利用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는 동반자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부나 원자력규제 위원회에 原子力協力에 기반을 둔 수출승인 신청등을 신속히 處理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웨덴政府, 原子力關聯法案 議會에 提出. 1990年 原子力發電比率 43%로



스웨덴政府는 石油依存度 減少와 原子力의 安全性 強化를 위한 法案을 議會에 提出하였다. 이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공급에서 석유의존도를 現在의 70%에서 1990년에는 45%로 減少시키며, 原子力發電에 대해서는 그 發電比率를 現在의 27%에서 19

90년에는 43%로 증대시킬 計劃이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후오스말크原子力發電所의 熱水를 利用한 首都 暖房計劃은 더욱 상세한 조사를 계속한다. 原子力發電의 安全性 強化에 대해서는 各 發電所마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地